

초등 사회과에서의 금융교육 내용 요소 분석 :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김재근**

요약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요소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단원을 통해 희소성, 생산, 소비, 소득, 저축, 소비자 권리 등 비교적 다양한 금융·경제 관련 내용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바른 생활'과 '슬기로운 생활'에서도 물건 아끼기, 가게 놀이 등 초보적인 금융 관련 내용이 제시되었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동일 단원이 유지되었으나 성취기준 수가 감소하고 '소득'·'저축' 등 금융 키워드가 사라지면서, 합리적 소비와 소비자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으로 초점이 좁혀졌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군에서 생산·소비의 경제 개념은 유지되었으나 금융 관련 내용은 후퇴하였고, 5~6학년 군에서는 가계·기업의 합리적 선택과 경제 교류를 중심으로 내용이 제시되었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경제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에 '소비와 금융'이 명시되었으나, 실질적인 금융교육 내용 요소의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언되었다. 첫째, 핵심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금융' 관련 진술을 초등 성취기준 수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금융 의사결정 역량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중등 간 금융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후속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금융교육, 사회과교육, 초등교육, 국가교육과정, 초등 금융교육과정

* 본 논문은 2025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jaegun@dnue.ac.kr).

I. 서론

초등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담론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초등 금융교육의 성과는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비로소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초등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금융교육 내용 요소가 국가 교육과정 수준에서부터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김태환, 김재근, 2023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 요소는 전체 교육과정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 요소는 늘 부재해 왔던 것일까? 김재근(2024)은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 사회과에는 ‘금융’, ‘은행’, ‘조합’, ‘예금’, ‘금융기관’ 등 금융 고유의 개념이 비교적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선행 연구는 분석 범위가 제7차 교육과정에 한정되어 있어, 전면 개정 체제가 종료되고 수시 개정 체제가 본격화된 이후의 변화 양상은 아직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시기를 분석 범위로 설정하고, 해당 시기에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요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시 개정 체제 하에서 초등 금융교육이 어떻게 조직되고 재편되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초등 금융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등 사회과에서의 금융교육

금융교육이 다루는 내용 요소는 일반적으로 ① 소득과 지출, ② 저축과 투자, ③ 신용과 부채, ④ 위험관리와 보험, ⑤ 금융 의사결정 및 소비자 권리 등으로 분류된다(김태환·김재근, 2023). 이러한 내용 요소들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위계적으

로 구성되며, 초등 단계에서는 용돈 관리, 합리적 소비, 저축의 의미와 같은 기초적 수준의 금융 활동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초등 단계의 금융교육은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금융 관련 의사결정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길러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어린 시기부터 형성되는 금융 습관과 가치관은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이어지는 금융 행동의 기초가 되며, 따라서 초등금융교육은 토대 교육(foundational education)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초등 금융교육은 주로 사회과 교육과정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과는 경제 영역을 통해 가계·기업·시장 등 경제 주체와 활동을 다루며, 그 안에서 화폐, 소득, 소비, 저축, 합리적 선택 등 금융 관련 개념이 학습 내용으로 포섭된다. 즉 초등 사회과에서의 금융교육은 별도의 독립된 교과 영역으로 존재하기보다는, 경제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온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위상은 한편으로는 경제생활 전반의 맥락 속에서 금융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경제 개념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금융 고유의 내용 요소가 약화될 위험을 내포하기도 한다. 본 연구가 ‘금융교육 내용 요소’를 별도의 분석 단위로 설정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즉, 경제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화폐, 소득, 저축, 보험, 금융기관, 신용’ 등 금융 영역에 고유한 개념과 학습 요소가 어떻게 자리매김해 왔는지를 별도로 추적함으로써, 초등 금융교육의 실질적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 선행 연구

초등 사회과 금융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초등 학습자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연구이고, 둘째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내용 요소의 포함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흐름에 위치한다.

김태환·김재근(2023)은 초등 사회과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초등 금융교육 내용 요소를 탐색하고, 학습 요소 차원에서 금융 관련 내용이 점차 축소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재근(2024)은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요소 분석 (~7차)

개념 또는 주제	교수 요목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금융								
은행								
조합								
돈								
예금								
금융기관								
절약								
용돈								
저축								
소비								
현명한 소비								
보험								
화폐								
소득								
수입								
지출(쓰쓰이)								
희소성								
가계부, IMF, 물물교환놀이								

<표 1>에 따르면 교수요목기부터 제2차 교육과정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금융’, ‘은행’, ‘조합’, ‘예금’, ‘금융기관’과 같이 금융 고유의 개념이 교육과정 문서에 직접 명시되었으나, 제3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이러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용돈’, ‘저축’, ‘소비’, ‘현명한 소비’ 등 생활 중심의 키워드로 그 강조점이 이동하였다. 제6차~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희소성’, ‘소득’, ‘지출’과 같은 경제 개념이 부분적으로 재등장하였으나,

금융 고유의 용어인 ‘금융’ 자체는 회복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초등 금융교육과정의 흐름을 일정 부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분석의 시점이 제7차 교육과정에 머물러 있어 그 이후의 수시 개정 체제 하에서 초등 금융교육 내용 요소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의 시기를 본격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이다. 국가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까지가 전면 개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수시 개정 방식으로 전환되어 현행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고 있다.

금융교육 내용 요소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된 단원명, 내용 체계, 성취기준, 학습 요소 및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등으로부터 금융 관련 개념을 추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수입, 지출, 소득, 화폐, 금융, 보험, 은행, 금융기관 등 화폐·금융 분야에 국한되는 개념들을 중심으로 추출하였으나, 희소성, 합리적 선택, 생산, 소비 등은 금융 의사결정의 기초를 이루는 경제 개념이므로 금융교육 내용 요소와의 연계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시 함께 기술하였다.

분석은 김재근(2024)에서 사용된 개념 추출-정리-교차 비교의 절차를 준용하였다. 먼저 각 교육과정 문서에서 금융 관련 개념을 1차 추출한 뒤, 동일 개념이 반복 또는 변형되어 등장하는 경우를 정리하였다. 이어 시기별 개념 출현 여부를 교차표로 정리하여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IV. 초등 금융교육과정의 변천

1. 2007 개정 교육과정

2007년, 처음으로 수시 개정 방식의 교육과정이 제정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2년 만에 다시 개정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데, 이 사이의 2년여 기간을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바른 생활’ 과목은 1학년과 2학년이 동일한 5개의 대주제 아래 서로 다른 활동 주제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1학년의 ‘내 일 스스로 하기’ 단원에서는 ‘몸 깨끗이 하기’, ‘자세 바르게 하기’, ‘스스로 준비하기’가, 2학년의 동일 단원에서는 ‘몸차림 단정히 하기’, ‘물건을 아끼고 정리 정돈하기’, ‘자기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기’가 활동 주제로 제시되었다

〈표 2〉 2007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육과정 (대주제)

학년	대주제
1학년 및 2학년	1. 내 일 스스로 하기 2. 예절 지키기 3. 다른 사람 생각하기 4. 질서 지키기 5. 나라 사랑하기

이 가운데 금융교육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2학년 ‘1. 내 일 스스로 하기’ 단원의 ‘(2) 물건을 아끼고 정리 정돈하기’이다. 해당 활동 주제는 3가지 세부 내용 요소를 담고 있으며, 주로 ‘물건 아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3〉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바른생활 2학년

대주제 및 중주제	세부 내용 요소
1. 내 일 스스로 하기	① 내 물건과 공공 물건 아끼기
(나) 물건을 아끼고 정리 정돈하기	② 학용품과 생활용품 정리 정돈하기
	③ 내가 쓰는 방 스스로 정리하기

2007 개정 교육과정 ‘즐거로운 생활’과에서도 금융교육 관련 내용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즐거로운 생활 2학년 대주제 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 4〉 2007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즐거로운 생활 교육과정 (대주제)

학년	대주제
2학년	1. 자라나는 우리들 2. 살기 좋은 집 3. 우리 마을 4. 알찬 하루 5. <u>가게 놀이</u> 6. 우리들의 한 해

이 가운데 금융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5단원 ‘가게 놀이’이다. 해당 단원은 기초적인 소비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요소는 다음과 같다.

〈표 5〉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즐거로운 생활 2학년 5단원

대주제	세부 내용 요소
(5) 가게 놀이	(가) 물건과 가게 - 가게의 종류를 알아보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안다. 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 알아보고 종류에 따라 분류하기 ② 여러 가지 가게의 종류 알아보기 ③ 물건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기 (나) 가게 놀이하기 - 가게 놀이를 통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사는 방법을 익힌다. ① 올바르게 물건 고르고 사는 방법 알아보기 ② 가게 놀이 준비하고 놀이하기 ③ 가게 놀이하고 느낀 점 발표하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 과목은 역사 영역,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경제 또는 금융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은 일반사회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사회 영역의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6〉 2007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내용 체계)

학년	내용 요소
3학년	◦ 우리가 살아가는 곳 ◦ 고장의 생활 문화 ◦ 이동과 의사소통 ◦ 우리 고장의 정체성 ◦ 사람들이 모이는 곳 ◦ 다양한 삶의 모습들
4학년	◦ 주민 자치와 지역 사회의 발전 ◦ <u>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u> ◦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5학년	-
6학년	◦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이 중 금융 교육과 관련된 내용 요소로는 4학년의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해당 단원에 대한 개관 및 성취기준이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 활동의 각 영역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 생활의 모습은 달라진다. 따라서 경제생활에서 바람직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의사 결정을 위해 경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른다.”

〈표 7〉 2007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4학년 4단원 성취기준

단원명	성취기준
(4)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①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한다. ② 경제 활동에서 바람직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확인한다. ③ 다양한 일을 조사하여 생산 활동의 의미를 이해한다. ④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산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의사 결정을 수행한다. ⑤ <u>소득의 원천 및 용도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 및 저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한다.</u> ⑥ <u>소비자 권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해한다.</u>

6개의 성취기준 가운데 금융교육과 관련성이 깊은 것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이다. 두 성취기준에서는 ‘소득’, ‘소비’, ‘저축’이라는 금융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명시적으로 등장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소비자 권리’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어, 본 시기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이 금융교육 내용 요소를 비교적 균형 있게 포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6학년의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과제’ 단원은 한국 경제사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금융교육의 주된 내용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2. 2009개정교육과정

2007개정교육과정 이후 2년 만에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2009년 고시된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관련 내용 요소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다시 2년이 지난 후 2011년에 개정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사회과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으며, 아래 표에서 대단원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2009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대단원)

학년	대단원	
3-4학년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2) 이동과 소통하기
	(3) 사람들이 모이는 곳	(4) 달라지는 생활 모습
	(5) 우리 지역, 다른 지역	(6) 도시의 발달과 주민 생활
	(7) 촌락의 형성과 주민 생활	(8)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9) 다양한 삶의 모습들	(10)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
	(11) 지역 사회의 발전	(1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5-6학년	(1) <u>우리 경제의 성장</u>	
	(2)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3)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4)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	

이 시기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 군의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단원, 5-6학년 군의 ‘우리 경제의 성장’ 단원이 경제 및 금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래는 3-4학년 군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단원의 개관 및 성취 기준이다.

이 단원은 경제활동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며, 경제적 선택에 따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선호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근거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의 의미와 경제생활의 모습을 이해하고,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노동자로서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표 9〉 2009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4학년 8단원 성취기준

단원명	성취기준
(8)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①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 기준(예, 비용, 만족감, 사회적 영향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생산 활동의 종류를 찾아보고, 각각의 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③ <u>합리적 소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과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u> ④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생산 활동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다.

해당 단원 성취기준 가운데 특히 금융교육과 관련되는 것은 3번째 성취기준으로, 합리적 소비 및 소비자 권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성취기준 수가 6개에서 4개로 감소하고 '소득', '저축' 등의 키워드도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단원명과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금융교육 관련 내용의 전면적 축소라기보다는 성취기준 진술 방식의 변화 속에서 금융 관련 개념이 잠재적 형태로 포섭된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예를 들어 '합리적 소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과 소비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라는 진술에는 정보 수집, 소비자 의사결정 등 금융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가 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 키워드 수준에서 보면 소득, 저축 등 개인 금융생활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용어들이 성취기준에서 사라진 것은 분명한 변화이다.

한편 5-6학년군 ‘우리 경제의 성장’ 단원의 경우 외환위기, 노사갈등 등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성취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금융 관련 사건이 교수 소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경제성장의 역사적 이해’에 중점을 둔 것이며 개인 금융 생활, 금융기관의 역할, 화폐·금융 개념 자체에 대한 학습을 의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15개정교육과정

2015년 고시된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초등 사회과의 내용 체계를 대폭 재구성 하였다. 3-4학년군 대단원은 12개에서 4개로 통합되었고, 5-6학년군도 8개 대단원으로 재편되었다. 대단원 체계는 <표 10>과 같으며, 이 중 3-4학년군의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와 5-6학년군의 (6)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관련 단원으로 볼 수 있다.

<표 10> 2015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대단원)

학년	대단원
3-4학년	(1) 우리가 살아가는 곳 (2)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3)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5-6학년	(1) 국토와 우리 생활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3)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 (4)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5)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6)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7) 세계의 여러 나라들 (8)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3-4학년 군의 4단원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는 총 3개의 중단원으로 되어 있으며, 2번째 중단원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1〉 2015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3-4학년 2단원

단원명	성취기준
(2)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4사04-03] 자원의 희소성으로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설명한다.
〈2〉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4사04-04]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물자 교환 및 교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간 경제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탐구한다.

첫 번째 성취기준은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는 있으나, 개인 금융의 기본인 소득, 저축 등의 개념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시장에 관한 역할 놀이, 모의 활동을 통한 학습을 안내하고 있어 실천적 경제·금융 경험의 여지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된 금융교육 내용 요소는 2007 개정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성취기준 역시 경제와 관련이 있으나, 지역 간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교육과의 직접적 관련성은 낮다.

5-6학년군의 경우 6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경제·금융 관련 성취기준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해당 단원은〈경제주체의 역할과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경제생활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라는 세 개의 중주제로 구성되며, 성취기준은 〈표 12〉와 같다.

[6사06-01]의 해설에서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에서의 합리적인 선택(가계의 합리적 소비, 기업의 합리적 의사 결정) 방법을 탐색"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가계의 합리적 소비라는 형태로 개인 금융 내용이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취기준 본문 자체에는 '금융' 개념이 부재하며, 소득, 저축, 화폐와 같은 주요 용어도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6사06-03]과 [6사06-04]는 한국 경제사에 해당하여 금융교육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고, [6사06-05]와 [6사06-06]은 무역·국제 경제 교류를 다루는 것으로 거시적 차원의 경제교육에 가깝다.

〈표 12〉 2015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5-6학년 6단원

단원명	성취기준
경제주체의 역할과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6사06-01] 다양한 경제활동 사례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파악하고,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탐색한다. [6사06-02] 여러 경제활동의 사례를 통하여 자유경쟁과 경제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
경제생활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6사06-03] 농업 중심 경제에서 공업·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파악한다. [6사06-04] 광복 이후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은 사회 변동의 특징과 다양한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탐구한다.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6사06-05]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제 교류 활동으로 나타난 우리 경제생활의 변화 모습을 탐구한다. [6사06-06] 다양한 경제 교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와 상호 의존 및 경쟁 관계에 있음을 파악한다.

4. 2022 개정 교육과정기

현행 교육과정인 2022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은 기존의 '대단원-중단원-성취기준' 체계에서 벗어나 '영역-핵심 아이디어-내용 요소-성취기준'이라는 영역 중심 내용 체계로 재구조화된 것이 특징이다. 초등 사회과는 지리 인식,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역사 일반, 지역사, 한국사의 11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경제는 그 중 하나의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대단원 수준의 조직은 〈표 13〉과 같다.

경제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는 “가계와 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소비와 금융, 생산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등 3개의 문장으로 제시된다. 여기에서 ‘소비와 금융’이라는 표현을 통해 처음으로 금융이라는 용어가 초등 교육과정 문서 상단의 핵심 아이디어 수준에서 다시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지만, 금융 생활은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내용 요소로 배치되어 있어, 초등 성취기준 차원에서는 ‘금융’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진술되지는 않는다.

〈표 13〉 2022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대단원)

학년	대단원
3-4학년	(1) 우리가 사는 곳 (2)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 (3)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4)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5)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 (6)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7) <u>경제활동과 지역 간 교류</u> (8) 민주주의와 자치 (9)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알리는 노력 (10) 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
5-6학년	(1) 우리나라 국토 여행 (2) 우리나라 지리 탐구 (3) 법과 인권의 보장 (4) 유적과 유물로 살펴본 옛 사람들의 생활 (5) 달라지는 시대, 변화하는 생활 모습 (6) 식민 통치와 저항, 전쟁이 바꾼 사회와 생활 (7)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8)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9)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10) 세계와 자연환경 (11) <u>시장경제와 국가 간 거래</u> (12) 지구촌 사람들

초등 경제 영역의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3-4학년은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활동, 지역 간 교류, 상호의존 관계'로 구성되고, 5-6학년은 '가계와 기업의 역할, 근로자의 권리,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경제성장의 효과, 경제성장과 관련된 문제 해결, 무역의 의미, 무역의 이유'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4〉 2022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경제 관련 성취기준

단원명	성취기준
3-4학년 (7) 경제 활동과 지역 간 교류	[4사07-01]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탐색한다. [4사07-02] 생산과 소비 활동을 파악하고, 인적·물적 교류의 사례를 통해 각 지역 및 사람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음을 탐색한다.
5-6학년 (11) 시장경제와 국가 간 거래	[6사11-01] 시장경제에서 가격과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의 자유 및 사회적 책임을 탐색한다. [6사11-02] 경제성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빠른 경제성장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6사11-03] 사례를 통해 무역의 의미를 이해하고,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를 탐구한다.

총 5개의 초등 경제 영역 성취기준 가운데 단어 수준에서 금융이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대신 합리적 선택, 생산·소비, 상호의존, 시장경제, 근로자의 권리,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경제성장, 무역 등 일반 경제 개념이 전면 배치되어 있다. 가치·태도 측면에서도 합리적 소비의 실천, 경제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 공정한 분배에 대한 감수성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저축, 이자 등 개인 금융 생활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는 여전히 부재하다.

이는 2022 개정에서 경제 영역의 핵심 아이디어 수준에서는 ‘금융’을 언급함으로써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초등 성취기준 차원에서는 이를 구체적 학습 내용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수시 개정 체제 전반에 걸쳐 성취기준으로서의 초등 금융교육 내용 요소는 실질적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종합논의

지금까지 분석한 2007~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초등 금융교육 관련 주요 내용 요소를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요소 분석 (~7차)

개념 또는 주제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금융				
은행				
조합				
돈				
예금				
금융기관				
절약				
용돈				
저축				
소비				
현명한(합리적)소비				
보험				
화폐				
소득				
수입				
지출(쓰쓰이)				
가계부, IMF, 물물교환놀이				
희소성				
생산과 소비				
소비자의 권리				
가계와 기업				
시장(시장경제)				
근로자의 권리				
무역(경제교류)				

〈표 1〉과 〈표 15〉를 함께 살펴보면 몇 가지 흐름이 관찰된다.

첫째, 교수요목기~2차 교육과정에 등장하던 금융, 은행, 조합, 예금, 금융기관과 같은 금융 영역 고유의 개념은 수시 개정 체제 전체에 걸쳐 재등장하지 않았다.

둘째, 6차~7차 교육과정에서 강화되었던 화폐, 보험, 소득, 지출 등의 개념 또한 2007 개정 이후 대부분 성취기준 차원에서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2007 개정 4학년 성취기준에서 '소득'이 단발적으로 등장한 것이 예외적 사례이다.

셋째, 저축 역시 수시 개정 체제 초기에 해당하는 2007 개정에서 등장하였으나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저축'이 교수요목기를 제외한 1차~7차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으로 등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변화가 더욱 두드러진다.

넷째, 가계와 기업, 시장경제, 근로자의 권리 등 거시경제적이고 제도적인 경제 개념이 2015 개정 이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2022 개정에 와서 비로소 금융이라는 용어가 핵심 아이디어 수준에서 재등장하였으나, 초등 성취기준 단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지금까지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 내용 요소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수시 개정 체제 하에서 초등 금융교육이 교육과정 문서 수준에서 어떻게 조직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시 개정 체제가 시작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단원에 6개의 성취기준을 통해 희소성, 생산, 소비, 소득, 저축, 소비자 권리 등 비교적 다양한 금융·경제 관련 내용 요소가 포함되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흐름을 일정 부분 계승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원명은 유지되었으나 성취기준이 4개로 축소되면서 소득, 저축 등 개인 금융생활 용어가 성취기준에서 사라지고 합리적 소비와 소비자 권리를 중심으로 초점이 좁혀졌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의 대폭 재구성을 수반하면서, 3-4학년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중단원에서는 생산·소비·시장 개념을 유지하되 금융 관련 고유 개념은 성취기준 차원에서 거의 제시되지 않았고, 5-6학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에서는 가계·기업의 합리적 선택, 자유경쟁, 경제성장, 경제 교류 등 거시·제도적 경제 개념이 강화되었다.

넷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경제를 독립된 영역으로 편성하고 핵심 아이디어 수준에서 '소비와 금융'을 명시하였으나, 초등 성취기준 수준에서는 여전히 등장하지 않고 있다.

2. 초등 사회과 금융교육 약화의 원인

이상의 분석 결과는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 내용 요소가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왔으며, 가장 최근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형식적인 인정과 실질적인 부재 사이의 간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시기 중등 사회과의 흐름과 대비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단계의 경제 영역에 '금융 생활과 자산 관리'가 별도의 내용 요소로 명시되었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인 「경제」, 그리고 융합선택 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을 통해 금융교육이 한층 체계적으로 확장되어 있다. 이처럼 중등 단계에서는 금융교육이 단원과 과목 수준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데 비해, 초등 단계에서는 핵심 아이디어 수준의 '소비와 금융'이라는 표현 외에 성취기준 수준의 실질적 진술이 부재하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되었다. 초등 사회과에서 금융교육 내용 요소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태로 유지되어 온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초등 사회과의 내용 체계가 '일반 경제 개념'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점이다. 수시 개정 체제 이후 초등 사회과는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가계와 기업' 등 미시·거시경제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 영역을 구성해 왔다. 이러한 구성 방식

은 경제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유효하지만, 금융 영역에 고유한 개념이 일반 경제 개념의 하위에 포섭되거나, 학습 요소에서 점차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둘째, 초등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금융 개념의 추상성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금융 관련 개념은 초등 학습자에게 너무 어렵거나 또는 추상적이라는 판단 아래 중등 이후 단계로 이관되거나 후순위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여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학습자의 일상생활 속 금융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며, 오히려 금융교육의 적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사회과 교육과정 내부의 영역 간 분배 문제이다. 사회과는 지리·역사·일반사회의 통합 교과로서 한정된 교육과정 분량 안에서 다양한 내용 영역을 다루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경제 영역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이며, 그 안에서 다시 금융교육 내용 요소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넷째,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합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던 점이다. 핵심 아이디어 수준에서는 ‘소비와 금융’이 등장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인 학년별 성취기준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된 논의 틀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선언적인 제시와 실질적인 부재가 공존하는 현재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 초등 사회과 금융교육의 방향

이상의 분석과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초등 사회과 금융교육의 방향과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소비와 금융’을 초등 성취기준 수준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기준 간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금융’이 핵심 아이디어로 명시된 이상 이를 뒷받침하는 학년별 성취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컨대 3-4학년 단계에서는 용돈 관리, 저축의 의미, 화폐의 기능 등을 중심으로, 5-6학년 단계에서는 금융기관의 역할, 신용과 책임, 위험관리(보험)와 같은 내용을 단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성취기준 체계를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득-소비-저축-투자-위험관리’로 이어지는 개인 금융생활의 흐름을 초등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소비’ 중심으로 내용이 편향되어 있어, 소득의 원천과 의미, 저축의 가치,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의 기초와 같은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합리적 소비’와 ‘소득의 활용’, ‘저축과 미래’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내용 요소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초등-중등 간 금융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금융 생활과 자산 관리’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 단계에서는 이를 위한 선행 학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위계적 설계는 학습자에게 보다 일관된 금융 소양의 발달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활동·경험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게 놀이’가 즐거운 생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초등 단계의 금융교육은 학습자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래·소비·저축 활동을 모의 활동, 역할극, 의사결정 게임 등의 형태로 구현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성취기준 자체의 보완과 더불어,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금융 관련 활동 중심 학습을 구체적으로 권장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디지털 금융 환경의 확산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교육 요소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바일 결제, 전자 화폐, 디지털 자산 등 새로운 금융 현상은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만으로는 충분히 다루어지기 어렵다. 초등 단계에서 무리한 깊이의 학습을 시도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일상 속 디지털 금융 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초적 소양을 형성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1).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_____(201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_____(2018).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_____(2022).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김재근(2024). 초등사회과에서의 금융교육 내용 요소 분석: 교수요목기에서 7차 교육과정
 까지. 금융교육연구, 9(2), 25-46.
 김태환·김재근(2023). 초등 사회과 금융교육 내용 요소 탐색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
 구, 24(4), 559-577.

Abstract

Financial Education Contents Analysi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Kim, Jaegeun*

This study analyzes the evolution of financial education content elements in the Korean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from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hrough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2007 Revised Curriculum retained a relatively rich set of financial education elements within the fourth-grade unit “Economic Life and Wise Choice,” along with basic financial-related content in the “Wise Life” subjects at first and second grade. Second,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unit was retained, but the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decreased from six to four; keywords such as income and savings disappeared from the achievement standards, narrowing the focus to rational consumption and consumer rights. Thir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hi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ncepts were preserved through the sub-unit “Production and Exchange of Needed Goods,” explicitly financial concepts retreated further at the achievement-standard level, and fifth and sixth grade achievement standards addressed the roles of households and firms, rational choice, and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 only as part of a broader economic-growth narrative. Fourth, the 2022 Revised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level still do not contain the term “finance,” instead centering on general economic concepts such as rational choice, production-consumption, workers’ rights, corporate freedom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trade.

Key words Financial Education, Social Studies, Elementary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Elementary Financial Education Curriculum

투고: 2026. 4. 23.

심사: 2026. 5. 18. – 6. 12.

게재: 2026. 6. 12.

*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aegeun@dnue.ac.kr).